

# 풍성한 가을 축제 하나로 잇는 '전주페스타'

시, '분산 개최' 묘미 · 축제 간 연결성 더한 통합 시즌 운영

전주시가 올해도 전주의 풍성한 가을 축제들을 하나로 엮어 선보이는 통합 축제 시즌인 '전주페스타'를 준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가을에 펼쳐질 '전주페스타 2026'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규모 통합 축제 장소 조성 전까지 각 축제의 고유한 특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분산 개최'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주페스타 2026'에서 오는 10월 2일 축하 행사와 함께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3일간 펼쳐지는 '전주비빔밥축제'를 비롯해, 오는 9월과 10월 전주 전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들을 하나의 '가을 시즌' 브랜드로 연결해 전주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주페스타는 단순한 행사 운영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통합 홍보 및 연계 콘텐츠 강화(통합) △지역사회와 연계 확대 및 친환경 경영(상생/ESG) △안전관리 및 현장 대응 체계 강화(안심) △방문객 의견 수렴 및 운영 반영(소통) 등 4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운영 기반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는 축하 행사와 주요 축제를 중심으로 전주의 우수한 음식과 전통, 문화예술 자원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 전역에서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올해도 성공적인 전주페스타 개최를 통

해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고, 전주 관광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회째를 맞았던 '전주페스타 2025'의 경우 전주 전역에서 주요 축제들을 성공적으로 분산 개최하며 총 25만 명의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등 해가 갈수록 전주의 가을을 대표하는 통합 축제 브랜드로 정착하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전주페스타는 기존 축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완성도 있는 운영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과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축제로써 내실 있는 콘텐츠로 전주의 가을을 풍성하게 채워 예정인 만큼, 많은 분이 전주를 찾아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 이효제 · 정하담 배우 확정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폐막식 사회자로 배우 이효제와 배우 정하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날 폐막식 사회자 선정을 발표하고 두 배우가 각기 다른 연기 색과 개성을 바탕으로 무대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폐막식은 오는 5월 8일 오후 6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레드카펫 입장으로 시작해 폐막작 김현지 감독의 <남태령> 상영으로 10일간의 영화 여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폐막식 사회를 맡은 이효제 배우는 아역 시절부터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가려진 시간>, <사도>, <공기살인>,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에 출연하며 폭넓은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를 통해 새로운 연기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정하담 배우는 <들꽃>, <스틸플레이>, <재꽃> 등 이른바 '박석영 감독 3부작'을 통해 주목받은 뒤 <밀정>, <해어질 결심>,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고기남일> 등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이어왔다. 드라마 <스위트홈>, <피리미드 게임>, <굿파트너> 등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두 배우는 올해 전주F미즈 프로그램의 파트너인 고스트스튜디오 소속으로 관객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영화 <검은 사제들>을 통해 인연을 맺은 바 있어 폐막식 무대에서의 호흡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재훈 기자



제96회 춘향제가 참여형 프로그램 '방자 챌린지'를 5월 5일 오전 11시, 길놀이무대에서 진행한다.

## 제96회 춘향제 '방자 챌린지' 개최

5월 5일 방자 캐릭터 재치 · 기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제96회 춘향제가 춘향전 속 방자 캐릭터의 재치와 기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 '방자 챌린지'를 5월 5일 오전 11시, 길놀이무대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 더욱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특히 그간 춘향과 몽룡에 가려져 있던 감초 캐릭터 '방자'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먼저 유쾌한 분위기로 축제장의 열기를 달궈 '방자 쑥!쑥! 챌린지'는 전통 소품인 짚신을 활용한 게임이다. 짚신을 발로 던져 소쿠리에 '쑥!' 넣는 이 이벤트는 방자 특유의 여유와 익살을 참가자들이 직접 재현해 볼 수 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객 누구나 즉석에서 도전할 수 있으며, 1인당 두 번의 기회 중 한 번만 성공해도 현장에서 바로 기념품을 증정하며,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특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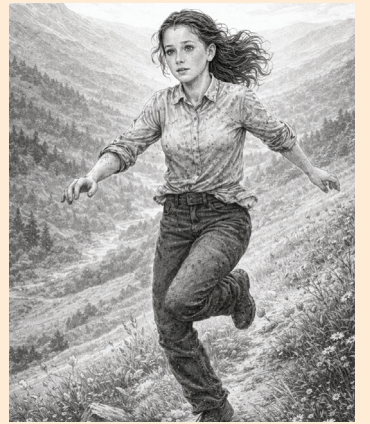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자의 강인한 체력과 근성을 현대적인 웨이트 트렌드와 결합한 '방자 풀업(턱걸이)' 챌린지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잠국의 턱걸이 고수들이 남원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4월 20일부터 구글폼을 통해 사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연은 남성과 여성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부문 우승자에게는 30만 원의 남원사랑 상품권이, 또한 실력뿐만 아니라 이색 복장이나 열정적인 참여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참가자에게는 별도의 인기가상이 주어진다. 특히 어린이날을 맞아 기획된 '꼬마 방자·향단' 부문은 경쟁 대신, 참여에 의의를 두며, 도전한 어린이에게 특별한 굿즈를 선물한다. 행사에 관한 정보는 춘향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남원시 관광과(063-620-5781)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8부 '굿패와 사랑' (1)

## 명희는 산을 내려가거라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강남준이 산을 내려간 후 며칠 뒤, 유격대는 방장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목인 운곡저수지 근처에 은거하고 있었다. 전방 전선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토벌 군경은 인원을 불러 빨치산 소탕에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유격대는 피치 못할 경우 선운산을 포기하고 방장산을 건너 내장산을 탄 뒤 회문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넘어가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었다. "내가 말이지, 어떤가 보려고 거짓말을 했거든. 나는 사실 남준이 그놈이 강용대한테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하지만 녀석이 학도대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 그래서 어쩌다가 보자하고 남겨뒀었더니 녀석이 훌쩍 넘어오더라고, 호호호."

한가해진 틈을 타 박창수가 넌지시 다가와 앉으며 박명희에게 자량이랍시고 떠벌렸다. 박창수가 다가왔지만 눈길도 주지 않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명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남준을 보냈지만 남준에 대한 복잡한 생각에 빠져서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 않았던 명희였다. 밧미도 하면서 또 곁에 없으니 허전해서 자주 남준을 생각하게 되는 이중적인 복잡한 속내를 감추고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남준이가 정말로 강용대한테 알려버렸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면서 남준이가 알려버린 것처럼 덤터기를 씌웠단 말이야?" "너도 봤잖아. 남준이 그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 제 눈이 그러지 않았다면 안 그랬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것 아니야. 제 눈이 그랬으니까 아무 말도 못한 거지. 안 그래?" 명희는 송곳눈을 하고 박창수를 쩌렷했지만 박창수를 성토했다는 말은 더 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쩌려봐. 정 떨어지게. 우리는 같은 혁명의 동지들이라고. 우리는 한 패잖아." 박창수는 은근한 눈으로 명희를 바라보며 얼굴을 더 가까이 디밀었다. 명희는 고개를 옆으로 휩 돌려버렸다. 유격대장은 결국 선운산을 포기하고 방장산으로 옮겨가기로 결정했다. 박대우가 명희를 찾아왔다. "명희는 산을 내려가거라." 박대우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듯 명희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사

실 명희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시력이 더 떨어져 저 앞에 있는 사물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 그동안 산을 타고 이동하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명희 곁에 다른 대원을 붙여야 했으므로 유격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산을 내려가면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민가에 내려갔다가 유격대에서 활동했던 게 밝혀지면 군경에게 체포되거나 보복을 당할 수 있어 선불리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대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더 이상 명희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명희는 산을 내려왔다. 산을 내려오면서도 겨우 막대기로 땅을 짚어가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산을 내려가자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근처 마을에서 빨래로 넣어놓은 치마와 저고리를 걸어서 입고 있던 군복과 바꿔 입었다. 어디로 가야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부안면 용산리 외가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15리쯤 떨어진 거리였다. 신작로를 걸어가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이 있었지만 앞을 잘 못 본다는 핑계를 댄음으로 의심을 받지 않았다. "아이고, 명희는 살아 있었구나! 이럴 어찌나! 후후후후." 외가로 도착하자 외할머니 임암택은 명희를 끌어안고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황천에서 있었던 참변이 외가에도 전해진 것이다.

선운산농협의 웰빙지향 정직한 농민의 마음 브랜드입니다.

### 최고의품질, 친절한 서비스 / 선운산농협 직접 운영

## 선운산농업협동조합

■ 상임이사: 안성민 사외이사: 진기영  
 ■ 비상임이사: 류채상 김용자 김완식 나삼주 서금자 최형곤 김범진 박수정 라종이 김대열 이종면 김대진  
 ■ 비상임감사: 이종호 김대환

■ 조합장: 김기욱

■ 본점: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34  
 - 사 무 실: 063)562-9604  
 - 팩 스: 063)562-9601  
 - 아 나 로 마 트: 063)562-9602  
 - 영농자재판매장: 063)562-9603  
 - 농기계서비스센터: 063)564-9605

■ 아산지점: 아산면 녹두로 793  
 - 사 무 실: 562-5007  
 - 사 무 실(아간): 562-5126  
 - 팩 스: 561-0955  
 - 아 나 로 마 트: 562-5166  
 - 영농자재판매장: 564-9772

■ 공음지점: 공음면 공음길 55  
 - 사 무 실: 562-7888  
 - 팩 스: 564-6465  
 - 아 나 로 마 트: 562-7889  
 - 영농자재판매장: 562-5556

■ 웰 파 크 지 점: 563-7255  
 - 팩 스: 563-7256  
 - 선 운 사 지 점: 561-3443  
 - 팩 스: 561-4257  
 - 복분자기공사업소: 564-5008  
 - 팩 스: 564-5078

■ 농산물유통센터: 562-9644  
 - 팩 스: 562-9654  
 - 선운산농협주유소: 562-9600  
 - 팩 스: 562-9609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지역에서만 자란 복분자 생과에 선운산농협의 정성을 더했습니다.

1544. 1589  
 복분자 1번지 선운산농협  
<http://www.berrywell.co.kr>